

“시민군 40명, 계엄군과 송암동 교전 이후 사라졌다”

5·18 때 백운광장 거주하던 유광영씨 광주일보에 제보

“군인 총격에 부상 당한 40대 아주머니 피 흘린 채 백운광장으로 와 분노한 시민군들 트럭 타고 효천역 몰려가…5분간 빗발치는 총성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27일 효천역 인근 논서 전복된 트럭 목격”

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시 남구 송암동 ‘효천역 인근-나주’간의 계엄군 도로 봉쇄 구간에서 시민군 40여 명이 진압군과의 교전 이후 자취를 감췄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시민군이 군용 지프차와

트럭에 나눠 타고 봉쇄지점으로 간 직후, 총성이 들렸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5·18 당시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유광영(72)씨는 15일 광주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나지 않는데 시민군 집행부가 결성된 이후”라며 “이날 오전 10시께 남평에서 광주로 오던 40대 아주머니가 금당산 인근 고개를 넘어오다 군인들의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며 백운광장으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광장에 있던 시민군 몇 명이 이를 보고 분노해 도청 상황실로 연락했다. 이후 이날 오후 2~3시께 칼빈소총, 방탄조끼 등으로 무장한 시민군 40여 명이 군용 지프차와 군용트럭에 나눠 타고 효천

역 인근으로 몰려갔다”고 말했다.

유씨는 “30여 분 후 5분간 빗발치는 총성이 들려 ‘교전이 붙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혹시나 시민군이 백운동쪽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길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한사람도 돌아오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1980년 5월 27일 오전 근무지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고 광주~나주간 도로를 이용해 당시 몸담고 있던 남평초등학교로 가던 중, 효천역 인근 굽이진 도로변 옆

논에 전복돼 있는 군용트럭을 봤다.

유씨는 “시민군이 타고 갔던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효천역 인근에서 총탄 흔적이 있는 버스를 봤다는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인터뷰 기사(2019년 5월 14일자 광주일보 1면)를 보고 39년 전 기억이 떠올라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5·18 연구자들은 유씨의 증언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유씨가 27일에 전복된 트럭을 봤다는 점으로

미워 시민군과 진압군이 교전한 시점은 25일이나 26일로 추정된다”며 “1980년 효천역 인근은 지금과 달리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고 분석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효천역은 21~24일 20사단 61연대, 24일 이후 전교사 보병학교가 경계를 맡았다”며 “금당산 인근에서 총을 맞았다는 40대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다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경찰청 앞에 ‘안병하 공원’ 조성

5·18 강경 진압 거부 뜻 기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강경 진압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기리는 ‘안병하 공원’이 조성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5일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17일 전남지방경찰청 사 입구에서 안병하 공원 현판식과 5·18 순직경찰관 추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 치안감과 목포경찰서장이었던 고(故) 이준규 총경의 유족이 참여한다.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하지 말라’는 안 치안감의 지시에 따라 시위대 버스 행렬과 대치하다가 순직한 함평경찰서

소속 정충길 경사와 이세홍·박기웅·강정웅 경장의 유족들도 참석한다.

5·18 당시 전남 경찰국장(경무관)이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의 야유에 대응하지 말라. 도망가는 시민을 쫓지 말라”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지시를 내렸다가 5·18 직후 체포돼 직위 해제됐으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1988년 숨졌으며 1992년 5·18 유공자에 이어 2006년 순직 경찰로 등록됐고 2017년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진실의 실타래에 달린 어린이들의 ‘5·18 소망 엽서’



15일 광주시 북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5·18엽서 달기’ 행사에 참여한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소망을 적은 엽서를 진실의 실타래에 매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남광주시장 출점 추진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상인 의견 재조사해 동의서 다시 제출하라”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 권고

광주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협의회)가 남광주시장 출점을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에게 준비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상인회에게 상인들의 의견을 공정한 방법으로 재조사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또 동구는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남광주시장은 이마트가 지난 3월 29일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을 동구에 제출하며 상인끼리 갈등을 빚어 왔다.

동구 조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기업이 유통매장(면적 500㎡)을 출점하려면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제출한 상인회 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서류에는 A상인회 소속 상인 50%가 동의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A상인회 회원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 의견이 78%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강신명·이철성 前경찰청장 구속 기로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검·경이 대립하는 가운데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두 전직 경찰 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께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한 강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은 어쩐지”,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이 전 청장 등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관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납품업체에 금품 받고 공금 횡령 순천시 공무원 구속

순천경찰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업무 중 농산물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금을 빼돌린 공무원 김모(52)씨를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 2017년 순천시 해룡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근무하면서 업체들로부터 현금 350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 김씨는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

지 않았으면서 구매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해 구매 대금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여러 업체에서 각 50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금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음주 행패에 화김 물 베풀…주인-손님 나란히 경찰서행



○…술에 취해 반찬가게 안에서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린 손님과 찰마 못해 바가지로 물을 뿌린 가게 주인이 나란히 경찰서행.

○…15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입건된 A(58)씨는 지난 14일 밤 11시 15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자

신의 반찬가게에서 손님 B(60)씨가 김치를 구매한 뒤에도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자 화가 나서 물을 뿌렸다는 것.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는데 이날은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욕을 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을 뿌렸다”고 진술.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 시 간** 오후 3시 ~ 6시
-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 대 상** 중3 + 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 신 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웅박사
4	5월31일(금)15~18시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